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의사와 구주

손봉호 (대표주관)



의술은 인술(仁術)이란 말이 있다. 소의(小醫)는 몸의 병을 고치고, 중의(中醫)는 마음의 병도 고치고 대의(大醫)는 세상의 병을 고친다는 말도 있다.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기술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오직 의술에 대해서만 이런 찬사와 기대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병이 나면 아프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아픈 것을 싫어한다.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것

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느낀다.” 철학자 셸러(Max Scheler)가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하였다. 사람이 기쁨을 추구하고 고통을 기피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쁨추구와 고통회피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J. Bentham)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하에 두었다.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고통과 쾌락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과장이라 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있다.

물론 쾌락추구와 고통 기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순교자 등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는 즐거울 수 없다. 얼른 생각하면 즐거움이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실상은 고통 기피가 즐거움 추구보다 더 시급하다. 즐겁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아프지만 않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소원일 것이다. 고통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급선무다.

물론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하는 고통은 육체의 아픔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의 원초적인 형태는 역시 육체의 아픔이고, 그 아픔이 계속되는 한 정상적이 되기가 어렵고 삶의 질이 높을 수 없다. 육체의 아픔은 정상적인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건전한 영적 활동도 어렵게 한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정상적인 삶의 전제조건이다.

물론 몸은 스스로의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므로 환자가 잘 관리하면 병이 스스로 고쳐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런 주장을 증명해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이든 치료행위가 이뤄졌고 치료자, 즉 의사가 있어 왔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7) 하셨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철학자 키르케고르(S. Kierkegaard)는 그의 책 『철학적 단편』에서 교육자로서의 소크라테스와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대조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모든 것에 대한 이념 (ideas)을 가지고 나기 때문에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지식을 제자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교육방법을 산파술이라 하는데 산파는 산모로 하여금 아기를 낳도록 도와줄 뿐 아기를 만들어 넣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주이신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다. 구주께서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가르쳐 주고 그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산파와는 다르다. 환자가 스스로 병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사에 비유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그것은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인간의 삶이 정상화된다. 마찬가지로 질병도 비정상적인 상태다. 치유되어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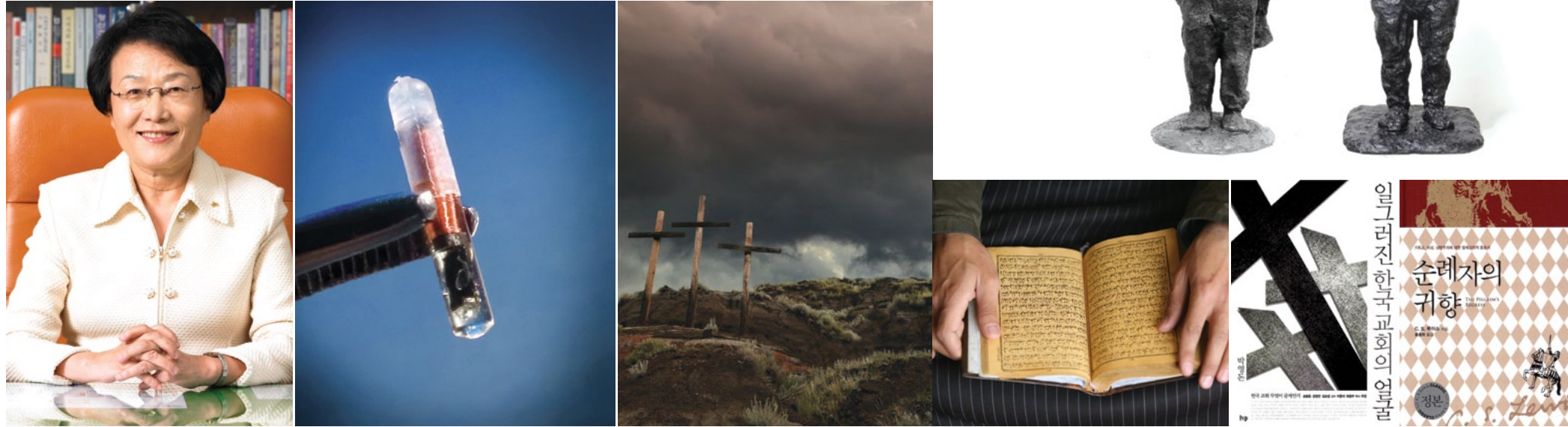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구속이 영적인 비정상 을 정상화하는 것처럼 의사의 치료는 육체적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처럼 육체의 질병이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외의 경우일 뿐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바울도 디모데의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졌다. 육체의 아픔은 일단 제거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기술은 인간의 삶에 이익을 준다. 그러나 의술은 다른 기술과 다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땅위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의사는 다른 기술자와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 요즘 의료인들이 그들의 기술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스스로의 지위를 격하하고 그 중요한 치유행위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의료인들은 다르기를 바란다. 그들이 받은 달란트와 훈련은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소명은 신성하리만큼 크다는 것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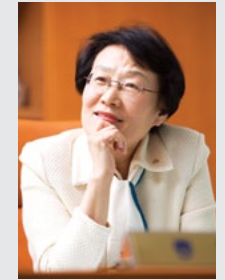
Contents

WORLDVIEW · FEBRUARY · 2014



WORLDVIEW

2014년 02월호 WORLDVIEW 통권 164호



표지인물
김수지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8 주께서 나를 돌보시듯, 그렇게 _김수지

SPECIAL

16 보건의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_김지원

21 특집 01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베리칩 논쟁 _박준현

25 특집 02 베리칩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_이승구

COLUMN

02 대표주관 의사와 구주 _손봉호

06 실행위원장 인사 2014년에는 모든 분들의 동역을 기대합니다 _조성표

32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_유해석

38 일상다반사 기독교세계관과 성경읽기 _전성민

42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믿음과 창작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다 _홍순모

CULTURE

59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46 서평 일그린 한국 교회의 얼굴 _황영철

50 서평 순례자의 귀향 _송태현

NEWS

58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호영
편집위원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인턴기자 김소라
디자인 황정희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메거진 m.worldview.or.kr

2014년에는 모든 분들의 동역을 기대합니다.

● 실행위원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동역회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지난 한 해 귀한 후원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동역회가 안정되고 다양한 사역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역을 돌아보고 새해의 사역 방향을 설정하면서 동역회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역회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하기에 응집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정치적이 아니고 순수하지만, 현실 문제 대응에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해 30년 이상 노력해 온 기독교 세계관 및 학문 연구의 중심기관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활동이 활발해지

면서, 학회 때마다 200여 명의 학자들, 대학원생들,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약하다 하여 우리의 실천성이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특성이며,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역량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합당한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를 거쳐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동역회의 임무(mission)와 비전을 기술하여 보았습니다.

• 동역회의 임무

- 1)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학문의 기초 형성
- 2)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 이슈에 대한 비평 및 대안 제시
- 3) 기독교 세계관의 연구, 보급, 확산

• 동역회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Think Tank

2014년도에는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혼란이 많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루는 중심 개념을 잘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 임원진에 젊은 학자들을 영입하여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2014년도 사역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동역회는 연구부문, 교육부문, 운동부문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마다 본부장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연구부문(장수영 본부장)인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기독교 학문연구의 중심 학회로서, 국내외 관련 학회와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의 질적, 양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계관 관련 융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부문인 세계관 교육본부(추태화 본부장)는 기독교학문 추천도서 및 논문 DB를 구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을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목회자, 예술인 등 대상별로 특화시키고,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과 같은 정규과목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실행위원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생활』(이상규,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윤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 1, 2』(11인 공역: CUP), 『공학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기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일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FRS 중급회계』(경문사),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10인 공저: 예영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세계관 운동 본부(조성표 담당)는 회원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사이버 강좌를 개발하고, 부진한 지부 및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최현일 부실행위원장)은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를 체계화하고, 간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며, 후원교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간지인 월드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김승욱 대표이사)에서는 월드뷰를 동역회 임무와 연계하여 학문 분과별로 심도 있는 글들을 생산하고, 매호 시사성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비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이관받아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독립운영기관인 CUP(김혜정 대표), CTC(유경상 대표), VIEW(양승훈 원장), CMCA프로덕션(장유진 대표) 등도 도약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VIEW는 지난해 전성민 박사를 전임 교수로 영입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회원 여러분,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동역회에 많은 조언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좋은 원고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써(고후 10:5),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날(암 5:24)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실행위원장 조성표 드림



주께서 나를 돌보시듯,
그렇게
영원한 간호사, 김수지

김수지 총장님

1978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아 신문마다 대서특필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김.수.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에서 간호대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녀는 1990년대 후반 국제연합 개발프로그램(UNDP)의 지원을 받아 국내 만성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역사회정신재활 연구사업(‘수지킴 프로젝트’)을 수행하였고, 이 사업의 놀라운 효과로 인해 2001년 간호학의 노벨상인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하였다. 60세가 넘는 나이에 서울 사이버 대학교에서 돌봄을 보다 효과·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복지이론을 체득하기 위해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학사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총장으로 발탁되어 4년간의 총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지금은 교회라 불리는 일흔이 넘는 나이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미래의 말라위 간호사를 키워내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교육이 바로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믿기에 나는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텃밭을 가꿉니다.

지금은 전문인선교사로서 말라위 대양간호대학교(학)장직을 맡아 말라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의 말라위 간호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0년 겨울, 이태석 신부를 다룬 다큐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즈음에 1993년부터 이미 말라위에서 의료선교사로 일하며 병원과 간호대를 세운 백영심간호사의 요청을 받고 결단했지요. 말라위는 전 세계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에이즈 고아만도 56만 명이나 되고 조산사도 부족해 하루에 160여명의 임산부가 적절한 산후 처치를 받지 못해 죽어갑니다. 2010년 당시 국민의 평균수명이 고작 39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도시로 떠밀려 나온 이들에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구의 85%가 살고있는 농촌 보건소의 70%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텅텅 비어 있구요. 이것이 제가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말라위 간호대학을 통해 에이즈 고아를 비롯한 말라위 청년들을 간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국민건강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양간호대학에서는 19명의 현지 및 외국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족마을로 나가 환자를 돌보며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조산교육도 합니다. 농사짓는 법과 적정기술도 가르쳐서 졸업 후에 마을로 돌아간 학생들이 주민들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Comment

말라위, 아프리카 최빈국, 전 세계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국가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내륙국가인 말라위 인구는 1,500만 명에, 국민총생산은 837달러로 전 세계166개국 중 156위다. 인간개발지수는 0.493으로 182개국 중 160위인 아프리카 최빈국(2008)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0.022(아프리카 평균 0.21)이고 간호사 수는 0.589(아프리카 평균 1.172)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의료인의 타국에로의 두뇌유출(Brain-drain)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HIV/AIDS 감염률은 14.2%로 세계 9위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2012년 통계는 10.4%로 많이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HIV 감염 인구수가 11,367명, 2007년 한 해 동안 AIDS로 인한 사망이 68,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AIDS로 인한 고아(0~17세)만도 560,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인구의 83.1%가 HIV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자 수직감염예방 치료가 필요한 연간 약 73,000여 명의 임산부 중 약 32%만이 치료받고 있을 뿐이다.

모성사망률은 출산 10만 건 당 1,100건에 이르고, 신생아 사망률은 26/1,000명, 영아사망률을 76/1,000명이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영유아 보건 증진이 강력히 요구되는 68개국에 말라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주님이 돌보셨던 그대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돌보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성공은 예수님처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세계관과는 거리가 먼 부모 사이에 7남매 장녀로 태어났고, 또 훗날 남편이 된 사람을 만날 당시, 그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고 시절, 헬렌 켈러라는 미국선교사를 만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고 훗날 남편이 된 그 사람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궁금증으로 시작하여 혼자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요. 가끔 방황하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한번 가정해 보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분명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어요. 고등학교 시절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교 문임을, 인간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고 부르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간호사로 부르셨고, 간호사는 사람을 전인적으로 돌봅니다. 돌본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주님의 돌보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봄의 대상입니다.

지난 오십년을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간호사로 환우를, 교수로 학생을, 호스피스케어로 죽어가는 사람을, 총장으로 좋은 사람을 키우는, 지난 날의 삶은 '돌봄'이 시작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생각과 삶이 변하고 끝내는 주위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돌봄'이 제 이론 (Interpersonal Caring 사람 돌봄)의 근간입니다.

한사람의 정신분열증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해 혼돈된 증상으로 잔뜩 성이난 한사람의 환자를 매주 토요일 3시에 만나 상담하기 시작하였고, 상담을 시작한지 4주째가 되어 갈 때 환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자 혼자 노력할 때와 가족이 함께 노력할 때의 치료효과가 확연히 다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12주가 끝나는 날,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말하였고, 그 환자가 데려온 13명의 환자와 자연스럽게 집단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나눔 중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보살핌, 돌봄, 간호라는 말이었습니다. UCSF 대학의 스트라우스 교수가 쓴 책 '근거이론 (The Grounded Theory)'에서 밝힌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체계화시켜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돌봄에 대한 실제의 에피소드, 즉 체험담을 모아 돌봄의 치유의 효과를 체계화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이것을 유사실험 설계로 수행한 사업이 '수지킴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사랑의 돌봄 행위들은 환자의 자존감(Self-esteem)을 높여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함으로써 기적을 낳게 만듭니다.

하루의 삶에서 최우선적으로(First priority),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Faith in God's word),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실천하며(Follow the word),
 열매 맺는 삶(Fruitful life)을 산다는 것,
 나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살피주신 것처럼 그 역시 그러한 이들을 섬기리라'

Comment

수지킴 프로젝트를 통해 간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하였다.

'사람 돌봄 Interpersonal Caring'로 명명한 이 이론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알아봐 줌'이다 이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서 친절하게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행위이다. 둘째는 '동참함'으로, 상대방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행위이다. 셋째는 '나눔'이다. 느낌이나 접촉, 생각과 경험, 꿈과 계획 등 자신의 소중한 것을 상대방과 함께 공유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나눌 때 환자는 자신의 고민 등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 진다"거나 "새로운 마음이 든다"고 표현한다. 넷째는 '경청함'이다. 적극적 경청으로서 온 마음과 몸으로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행위이다. 다섯째는 '동행함'이다. 삶의 현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위로서 곁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것 등이다. 동행해 줄 때 환자는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 '나를 지켜 봐 주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여섯째는 '칭찬함'이다. 상대방의 장점과 잘한 것을 찾아내어 인정해 주거나 확인시켜주고 반드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을 세워주는 행위이다. 일곱째는 '안위해줌'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며 그의 슬픔이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행위이다. 여덟째는 '희망 불어넣음'이다. 상대방에게 에너지 또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정성을 다해 힘껏 불어 넣어주는 행위이다. 아홉째는 '용서함'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며 용서해 줄 것을 청하는 행위이다. 열 번째는 '수용함'이다.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행위이다.(김수지 저,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참소)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해야 발전이 있듯, 사람을 돕는 봉사정신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보살피고 섬기는 봉사는 바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편해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남편, 故김인수 교수)는 지금은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라고 자신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은 최선을 다해 절약하라, 그래서 남은 돈은 열심히 남과 나누어라." 물론 저희 부부가 어려서부터 잘 산건 아니었습니다. 고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더욱 편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겨야 할 하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돈은 항상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옛날처럼 찌들게 가난하지도 않고 먹고사는 데 별로 어렵지 않은 요사이 우리네 삶에서 적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살다보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웰 에이징well-aging하는 거지요.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잘 늙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가진 것을 다 들어 쓰시려고 칠순의 나이에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50년 간호인생 또한 나누라구요.

Comment

“나누는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입니다. 이메일을 쓸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끝맺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함께해요.’의 줄임말이지요.”



말라위는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연자원이 없는데다 강수량이 원래 부족하여 옥수수과 담배를 제외한 농사마저도 어려워 식량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없는 것이 많다보니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절실히 느낀 것은 일상생활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작업, 가령, 우리나라에서 실시했었던 “새마을 운동”같은 전 국민대상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

옥수수죽이 하루 끼니의 전부인 상황이라 학생들의 건강 상태도 나쁠 수밖에 없었다. “첫 임상실습 때 학생 2명이 쓰러졌어요. 영양 부족이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7도 안 되더군요. 한국 성인 평균 수치가 12정도인데, 7이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학생들에게 계란 하나와 고구마 1개씩 먹였습니다.”

그렇다고 베풀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말라위에서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때로는 오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당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침공을 받은 적도 또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도 없어서인지 활달하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것뿐이고, 아는 친구의 도움을 잠시 받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혜(施惠)’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입니다.

Comment

학생들의 시간 개념도 문제였다. 대부분 첫 수업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야 교실에 들어왔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몇 달간 원인을 찾던 김 박사는 “학생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시계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해의 방향을 보고 수업에 들어오다 보니 수업 시간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말라위에 간 지 한 달 뒤 고신대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말라위 학생들 이야기 했더니 간호학과 학생들이 ‘돕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시계를 풀어서 주더군요. 다음 날엔 광주 기독교대학 간호대 학생들이 시계 60개를 모아줬습니다. 말라위로 돌아가 교수, 학생들에게 시계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5분 지각에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요. 다음 날부터 지각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느릿느릿 걷던 학생들이 이젠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말라위는 지난해의 흉작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3년간이나 지속되었던 흉년으로 인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을 때, 당시 빙과와무타리카 대통령이 유엔에 긴급 식량구호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말라위가 세계에 알려졌더구요. 말라위는 열악한 자연조건 때문에(강수량이 적고 햇빛이 강한데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처럼 금광석이나 기름, 사파리 등 천연자원이 없는) 타국 및 타 종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도, 또한 침공한 일도 없이



그냥 자연에만 의존한 채 평온하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19세기 초, 이 나라에 들어온 영국 선교사들의 복음적인 삶이 끼친 영향으로 말라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가 몸에 베어있음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감사 Zikomo”라는 말을 입에 달고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밤사이 죽음으로 새 날을 맞이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자신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해가 나면 나는 것에, 비바람이 불어치면 불어치는 것에도, 새로운 한 날 그 날의 삶에 감사하며 기쁨에 넘치는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몸동작으로 춤추며 온 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식인 옥수수 농사가 잘되는 해에는 그나마 굶주림을 면할 수 있지만, 안 되면 하루 두 끼 먹던 식사를 한 끼로 줄이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서로 나눠먹고, 그나마도 안 되면 굶고, 그러면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라위의 별명이 “Warm Heart of Africa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입니다. 사실 바다처럼 넓고 큰 말라위호수(길이 570Km, 넓이 75Km)가 있지만 관계 수로를 만들 경제력이나 정치적 리더십이 없어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지도 못한 채 그저 현재의 식량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저희 대양간호대학의 새 도서관 봉헌식에 참석한 조이스 반다 대통령께서 류광철 주집바브웨대사를 비롯한 우리한 국민들에게 시급한 식량구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 기아대책을 비롯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식량구호금을 보내와 현재 추장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골마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지 1942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숙명여고와 이화여대 간호학과(63년)를 졸업했다. 한국인 최초의 간호학 박사(미국 보스턴대학교, 1978)로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간호과학연구소장, 대한간호학회장, 대한YWCA연합회 부회장,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장, 한국호스피스협회장 등을 거쳐 현재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대학에서 교장(Principal)으로 섬기고 있다. 국제나이팅게일 재단이 매 2년마다 수여하는 간호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간호대상(International Achievement Award 2001)의 두 번째 수상자이기도 하다.

Comment

“유엔의 새천년목표 중 3번째 (양성평등 진작 Promote Gender Equity)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전 빙구와무타리카 대통령에 의해 부통령으로 임명된 여성 인권운동가인 조이스 반다여사는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급서하자 그 직을 이어받아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하여 국가에 환수하겠다, 대통령직 월급의 절반만 받겠다. 먹을 것 때문에 저지른 잡범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없이 하겠다’ 등의 의지를 발표하여 주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곧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관행처럼 지속해 오던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꾸준히 단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1월 말,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에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이 초청되었을 때 그분의 여러 가지 선한 개혁의 의지를 귀히 여긴 전주대학교(이사장: 홍정길 목사)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대학도 결단력있는 리더십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그분을 격려하기 위해 새 도서관 이름을 Dr. Joyce Banda Library로 명명했습니다.”

※인터뷰어의 동의하에 관련 기사 및 인터뷰어의 도서인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WORLDVIEW SPECIAL



생명을 말하다

보건 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베리칩,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 특집1.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베리칩 논쟁
- 특집2. 베리칩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p>베리칩(Verichip)이란 Verification+Chip의 합성어로 ‘확인용 칩’을 의미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Verichip 회사 (Verichip corporation : 현재 Positive ID Corporation로 회사명 변경)에서 만든 쌀알 크기의 작은 마이크로 칩으로 생명체의 몸속에 투여하여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2004년 10월 12일 미국은 FDA 의료용으로 베리칩 사용 (‘개인별 인증, 안전에 대한 제품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피에 근거하여) 승인하였다. 애완용 동물이나 가족들의 관리를 위해 전자 인식표로 사용하거나 인체(근육)에 주입(주사기)을 통해 간단하게 주입하여 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하며,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베리칩을 심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p>	<p>베리칩의 국제적 추이 미국 : 건강보험개혁법(2013년 3월 의회 통과)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강화해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국민에게 베리칩을 이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2013년까지 준비기간을 갖고 2016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강제로 실시예정) 멕시코 : 기밀정보접근권을 가진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안을 명분으로 베리칩 의무 이식 국제반도체 컴퍼런스(2012년 10월 25일 지식경제부 주관 개최)에서 삼성전자 상무는 “미래에는 고성능, 저전력 요구에 부합한 개인화된 바이오칩이 대중화된 베리칩 사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p>	<p>개의 유전자 코드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저장한다.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의 하나인 RFID(Raid Frequency Identification, IC칩을 내장해 무선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인식 기술)로 작동한다.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외부 스캐너에서 신호가 오면 작동하여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베리칩의 응용 의학분야에 주로 활용하는데 중대하고 위험한 질병(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에 걸린 사람의 생체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위험을 알려주며, 알츠하이머 환자가 집을 못찾고 길을 헤매고 있을 경우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과자 등과 같은 위험하고 상습적인 전과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에 또는 길 잃은 애완동물을 찾기도 하고, 보안구역(CIA 등) 출입시 자동적인 신분 확인용 및 대형마트에서 신</p>	<p>속한 쇼핑 결제나 클럽의 VIP 고객 등록에 활용가능하다. 베리칩의 위험 건강측면 : 생체칩을 이식한 쥐에서 중앙 발생, FDA의 특별 관리 요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측면 : 개인의 사생활 정보수집, 개인의 정보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오용 혹은 악용 측면 : 빅데이터, 빅브라더의 등장,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차별을 강요하는 등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충분히 악용될 수 있음, 전자파로부터 사회처럼 개인에 대한 일상적인 전자 감시 가능 사회적 차별 (social divide) 측면 : 정부나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또는 약자들에게 베리칩 이식 강제 가능</p>
---	--	---	--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 김지원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의료보건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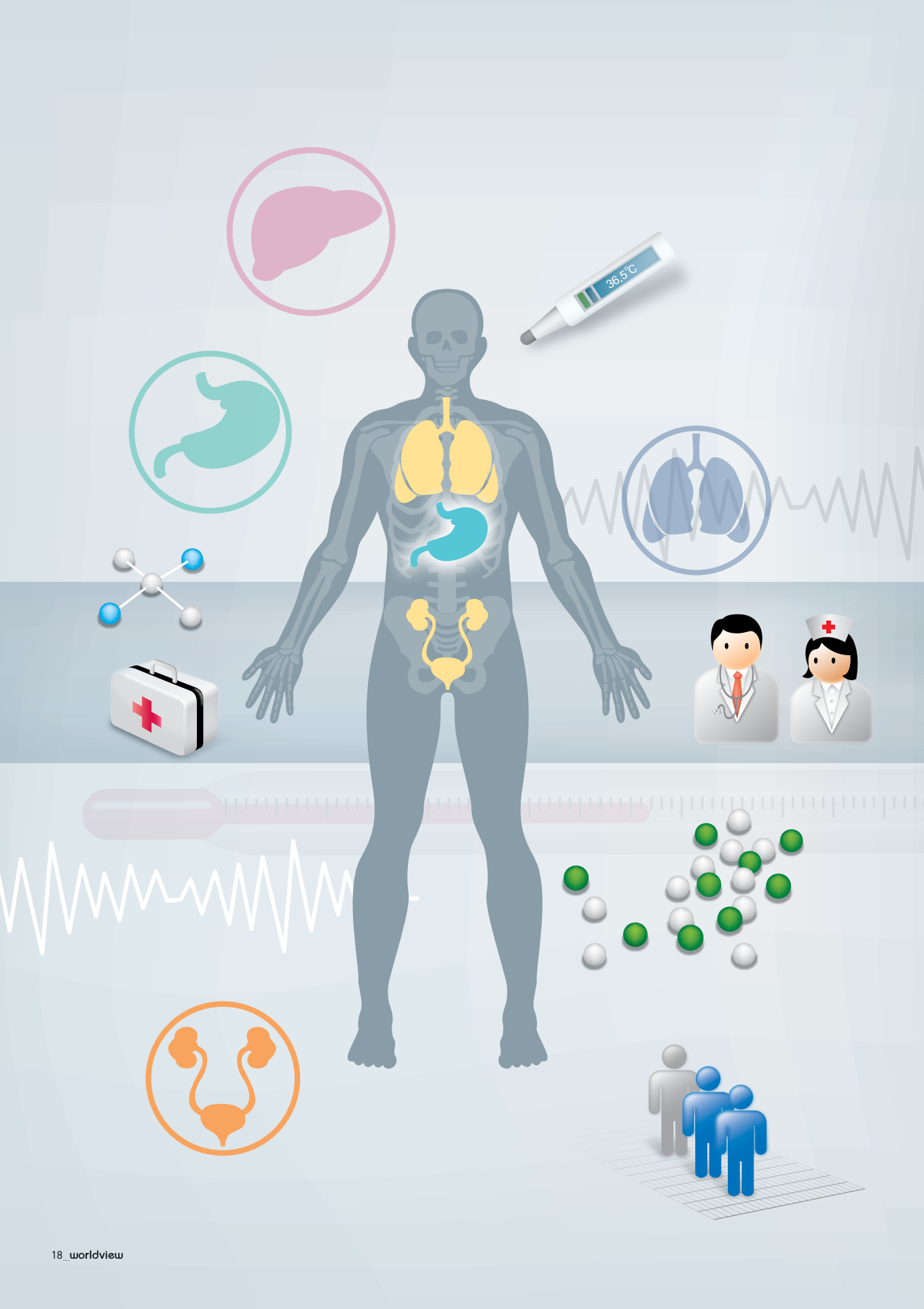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해부학 실습실에서의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다. 해부학 실습실을 배경으로 한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란 심하길 바란다. 시신을 해부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끔 해부학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때 어떤 학생의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다.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아닌 줄 알았어요.”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성가대와 청년부 공동회장으로 섬기며 나름대로 열심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학생이 내뱉은 한 마디는 꽤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 같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해부학 강의실과 실습실에서는 전혀 크리스천의 향기를 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와 학교에서의 삶이 각기 다른 정신편열증 환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미 15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나의 신앙과 학문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같은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교육과 연구 분야의 선교사

보건의료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 존경스럽고 부러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비교적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라 여겨진다. 후자를 보건의료분야 교육과 연구분야에서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다.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낯설고 험난한 선교지로 떠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술을 펼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져버린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 학문을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더욱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자들이 일반 학자들과 똑같이 학문의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을 인정받고 연구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기독교 학문을 외치기란 공허하고 무모한 외침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학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희생이며 내려놓음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선교사처럼, 나 중심의 학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학문을 할 생각만 있다면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 학문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 적용하기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의료분야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성경이 건강의 정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강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건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기본적 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조의 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 당시의 인간을 온전한 건강 상태로 본다. 이는 하나님, 이웃, 나(영, 육)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건강 상태를 말한다.

타락의 틀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창조세계의 왜곡으로 질병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 이웃, 나(영, 육)와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구속의 틀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웃, 나와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볼 때 보건의료분야 교육과 연구도 죄로 인해 타락했고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자는 과학적 자연주의,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들어 왜곡된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보건의료분야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생물학 관련 과목 대부분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진화의 산물로 볼 것인가, 창조의 산물로 볼 것인가는 의학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다. 따라서 생물학 시간에 창조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면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했지만 인간을 고장 난 기계같이 바라보는 생의학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즉, 나 자신(영, 육)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각각이 건강의 중요 요인임을 알고 전인적으로 환자를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나아가 온전한 건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영, 육)를 다루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목회자, 심리전문가, 지역사회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Claerbaut는 『위태로운 신앙과 학문』(Faith and Learning on the Edge)에서 “세례 받은 이교사상”을 이야기하며 기독교학자에 의한 세속적 교육 현실을 꼬집는다. 지난 학기에 전공학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 윤리’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보건의료학문의 철학적 근거와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이 이미 과학적 자연주의,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떠한 보건의료인이 되어야 하는지보다 미래를 위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취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독교학자라면서 부르심 대신 세상을 좇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수업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분야별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각 분야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분별력을 갖춘 보건의료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자들은 현재와 미래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줄 후진을 양성하는 중요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후학 교육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미래 보건의료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속한 각 학문을 연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기독교학자로서 해부학과 재활학을 연구하는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연구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학자가 해부학을 연구한다고 결과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연구나 분자생물학 실험, 인체운동학 등을 통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할 때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잠언 16:3)고 말씀한다. 신앙을 가진 해부학자와 생리학자라면 그 연구를 통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는 학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학문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각 영역에 소명을 받은 학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다만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자신의 연구 분야가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연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큰 그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앙과학> 18권 4호(p.107-108)을 참조.)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 기초의학 연구는 창조 당시의 온전함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인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병리학을 연구하는 기독교학자라면 질병이 인간의 원죄에서 기원했음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인체가 죄로 인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창조세계 전반에 걸친 훼손이 병의 인자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환경과 환경의학은 타락 이후의 자연 환경과 인위적, 사회적 환경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건위생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임상의학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환자의 영적회복을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절반의 성공이 아닌 온전한 성공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는 보건의료 선교사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의료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의 의료현실을 바라볼 때,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 기독교 학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실패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설대위 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운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종되었으며 의학은 남았으나 성스러운 임무는 사라져간다.”고 한탄하였을 것이다. 절반의 성공이 아닌 실패의 원인은 바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기독교 학문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었다가 세속화된 국내외 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범아시아아프리카 대학협의체(PAUA)에 소속된 대학이나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지원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로 기독교보건학회 총무이사과 기독교문연구회 의료보건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재활학에서 공부하였고, 연구분야는 재활치료에 의한 형태학 및 분자생물학적 변화이며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문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997년 12월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하여 설립되었다. 기독교 윤리 전통에 바탕을 두고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 기관이다. 최근 베리칩 논쟁이 가열되면서 이를 심층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중 정신의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베리칩 논쟁을 소개한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베리칩 논쟁

박준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베리칩 (Verichip)

베리칩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 칩이다. 베리칩에는 개인 확인을 위해 16자리의 고유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 외부 스캐너에서 신호가 오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무선으로 관련정보를 읽고(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이를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네트워크 상에서 확인한다. 이 베리칩은 의료현장에서 투약, 처치, 시술 시 개인 확인과 관련된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고 치매환자나 의식을 잃은 환자, 정신지체자 등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이에 2004년 미국 FDA에서는 베리칩을 제2군의 의료기기(Health Information Microtransponder System)로 허가하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의 사용은 사회적, 윤리적, 신학적 측면에서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 글에서는 베리칩과 관련된 논란들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베리칩과 정신과적 증상

(Verichip and psychiatric symptom)

먼저 베리칩 논란과 관련 가능한 모든 정신과적 증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베리칩이 이식되고 의료목적 외에 개인 식별이나 결제의 수단에도 베리칩이 사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이때에 베리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신과적 증상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안이다. 개인의 행동, 위치 그리고 취향이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불안을 유발한다. 또한 기존의 RFID 방식을 사용한 전자여권이나 교통카드 등에 대해서도 해킹, 복제, 조작 가능성이 수 차례 제기되었으므로 자신을 증명하는 신호도 복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식된 베리칩의 이상조직반응, 발암물질일 가능성, 신체 다른 곳으로의 베리칩 이동, MRI 촬영시의 신호간섭 등 잠재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위협도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는 개인의 불안장애나 망상장애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망상장애나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이식된 칩에 의해 염탐, 미행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혹은 베리칩을 통해 조정되고 있다는 조정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베리칩이 정신질환의 발병에 기여를 유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정신질환의 증상이 베리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망상이 많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청장치나 악성코드, 해킹, 유명 연예인, 미디어, 정보기관 등이 망상의 내용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대와 속한 문화, 배경 등에 따라 망상(delusion)의 내용도 변화될 수 있다.



베리칩과 네트워크 (Verichip and network)

베리칩은 한 개인을 인식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시대에 따라 한 개인을 인식하는 방법도 변화되어 왔다. 산업화 이전에는 가족과 신분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기에 개인의 신분, 소속, 배경이 그 사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폭도 넓지 않아 개인별로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기회도, 시간도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로는 다수의 사람들을 짧은 시간동안 만나는 사회가 되어, 지금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해지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능력이 그 사람에 대한 규정 근거가 되었다. 스키피나 외모, 명품 등이 나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외향적인 것이 미덕이 되었다. 나아가 많은 대인관계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에 공개된 나의 모습이 나를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 개인의 SNS ID 만 알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의 일상과 취향 등을 깊이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부가적인 도움을 받는 편의성의 측면 외에 개인의 정체성에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과거의 나를 내가 기억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상에 담아놓게 되고 매일의 일상도 네트워크를 통해 주위 사람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나눈다. 나아가 현재와 과거의 데이터들을 근거로 미래의 나의 판단을 제안 받기도 한다. 베리칩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개인의 인식과 정체성에서 네트워크의 비중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있을 때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외되고 격리된 느낌을 가지며 불안해진다. 소셜네트워크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네트워크 의존 혹은 네트워크 중독이라 이름 붙여야 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베리칩이 네트워크 접속과 관련된 ID 등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과 소외감이 커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다.



베리칩의 선택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

(psychologic factors regarding to verichip)

이미 에리히 프롬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을 경계한 바 있다. 오랜 노력 끝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성취하여 독립성과 합리성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 인하여 고립되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자성과 개인성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으로 자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부담을 피해서 다시 의존과 복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의존과 복종이 독재자에게 자유를 맡기는 전체주의를 낳게 되며 개인은 사물화, 도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립과 무기력이 커져 가며 많은 교류가 통제하기 쉬운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에리히 프롬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거대한 세력의 강압이 아니라도 베리칩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점점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우선적 가치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생명에 대한 경시 등 여러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베리칩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 사회는 '불안을 권하는 사회'이다. 각종 괴담과 공포가 도처에 있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미래가 불안해서 열심히 일하며 사건, 사고, 재해, 질병 등 여러 불안 요소들 때문에 안전을 위한 소비를 한다. 여기에 유괴, 실종 등 사건 사고와 관련된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는 전 사회가 안전에 집착하게 하여 인권이나 윤리적 문제를 억누르는 원인이 된다.

베리칩과 종말론 (Verichip and Eschatology)

베리칩 논란의 핵심은 결국 종말론과 닿아 있다. 신학적 논의를 최대한 배제한 채 정신과적 관점으로 베리칩의 종말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무기력이 팽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한 열광으로 심리적 무기력이 표출될 수 있다. 또한 여러 현상들을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베리칩에 잘못 투사(projection)시키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특정 종파나 세력이 위기론을 통하여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종말과 관련하여 베리칩의 수용 여부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의 다양함과 모호함을 견딜 수 없어 이를 단순화시키는 전치(displacement: 생각, 감정 등을 수용가능한 다른 것으로 바꿔 놓는 것) 현상일 수도 있다. 즉, 베리칩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며 구원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결론 (Conclusion)

베리칩과 관련된 신학적 논쟁을 떠나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자유를 반납하는 전체주의나 편안하고 효율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베리칩은 불안과 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연결될 수 있으며 베리칩 논쟁과 관련하여 불안, 투사, 전치 등의 심리적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



박준현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이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로 있으며 사회정신의학 학회지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정신분석학회, 대한조현병학회 정회원, Research Trainee in Mayo Clinic Molecular Pharmacology Experimental Therapeutics이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다.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에 서명하면서 그동안 가난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3,200만 명이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 법안에는 미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삽입하는 기구(device that is implantable)에 대한 언급이 있다. 미국 국민이라면 유사시 병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이 담겨 있는 베리칩(verychip=verification chip), 즉 일종의

무선식별(RFID) 장치를 몸에 이식받을 것이라고 한다. NBC는 “2017년까지 우리 모두 몸에 칩(chip)을 이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하였고, 2013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베리칩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Applied Digital Solutions, www.adsx.com)사가 선보인 마이크로칩(microchip)이다. 앞으로 여기에 GPS 기능을 추가하면 개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베리칩은 사람의 인체 안에 미세한 마이크로칩을 주입

해 인체정보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전자 인식 도구이다. 이 베리칩은 의료 정보 파악 등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있다 하여 끊임없는 인권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여러 사람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이 동의할 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논의를 위한 원칙의 설정

그러나 이것을 종말론과 연관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표(666)가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면서, 베리칩 이식을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몇 기독교 단체가 베리칩을 받지 말자는 단체 문자를 전송했으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설교한 목사님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리칩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베리칩이 참으로 짐승의 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이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짐승의 표 ‘666’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어떤 현상과 1:1로 대응시켜 논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이러한 경향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계 13:16-17)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마이크로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주입할 것이고, 장차 고도의 전자 사회가 되면 이것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꼭 이마나 오른손에 주입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베리칩이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베리칩이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전자 장치와 인간의 정신이 상호 작용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짐승의 표’ 666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16-18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수’, 즉 ‘사람의 수’(계 13:18)라는 666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다른 숫자들과 같이 ‘상징적 숫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 “666의 상징적 의미는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많이 논쟁된 것이다.”¹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라는 것은 종들에게 주인의 표시를 하던 옛 관행을 반영한 심상(心象, image)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찬탈하고 있는 세력의 종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즉, 가장 건전한 해석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주(主)와 왕(王)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에게 속해 있다는 표, 즉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것을 편안히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 오직 나사렛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즉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해 있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체성과 안정감을 얻는 것이다.’

666은 ‘6이라는 수가 (유대인의 관념에서) 하나님의 수인 7에 대해 항상 모자란다는 점에서 사람의 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 헨드릭슨은 이것이 악의 ‘계속적인 실패’를 나타낸다고 말한다.³ 아마도 요한은 이를 세 번이나 겹쳐 표현함으로써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악하다는 것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런 악함(즉 ‘짐승의 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 듯하다.⁴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악함이라는 짐승의 표(특성)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런 원칙 하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격이나 그런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속적 악함’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상징적 숫자’인 666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베리칩을 몸 속에 이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악한 세력에게 속한 ‘표’(특성)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표’(특성)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가가 중요하다. 즉, 요한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남들이 부러워하게끔 살 것인가 하는 것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시며 유일하신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 전체로 섬기며

1. David E. Aun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770.
 2. Philip E. Hughes,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0), 154: “The number 6 has understandably been regarded as a symbol of man, in that it falls short of seven, which is the divine number.”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는 그 글자의 숫자를 가지고 표시하는 소위 “게마트리아”(gematria) 방식에 의하면 7을 항상 넘어서는 방식으로 표현된 888(이오타=10, 에타=8, 시그마=200, 오=70, Y=400, 시그마=200)인데, 그와 달리 “짐승의 수”는 온전수(the perfect number 7)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666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생각은(Leon Morris, Revelation, revised editi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VP and Grand Rapids: Eerdmans, 1987], 169; Craig S. Keener, Revelation,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354) 흥미롭기는 하지만 “예수”의 888과 꼭 대조적으로 표현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진다.
 2세기의 이레니우스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Evantas, Lateinos, 그리고 Teitan 등의 여러 이름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Irenaeus, Against Heresies, 5:30). 그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서 Cf. G. B. Caird, A Commentary on Revelation,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New York: Harper & Row, 1966), 174-76; 또한 100여개의 이름을 언급하며 정리하고 있는 David Brady, The Contribution of British Writers between 1560 and 1830 to the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13:16-18 (The Number of the Beast): A Study in the History of Exegesis (Tuebingen: Paul Siebeck, 1983)도 보라. 이 모든 제안들이 모두 다 대답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선언하는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265를 보라.
 3.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Grand Rapids: Baker, 1944), 182: :failure upon failure upon
 4. 이런 해석의 대표적인 예로 Morris, Revelation, 168f.을 보라.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소위 '침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된 의식과 삶의 태도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이며, '침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리칩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따라서 베리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베리칩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의료 기록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하여 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유익한 점도 있으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 그리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베리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흥미롭게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기에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며 논의하는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여겨야 한다.

즉,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이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각자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속한 의료적 돌봄과 도움을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 분석해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기는 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성경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베리칩을 요한계시록과 연관시키거나
기독교적 종말론과 연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성경해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위해 더욱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각자 신실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를 걱정하면서 베리칩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분들은 또한 다른 분들이 베리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현한다고 그런 입장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베리칩을 이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베리칩을 요한계시록이나 기독교적 종말론과 연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성경해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기독교적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본 칼럼은 <목회와 신학> 2012년 9월호(P. 152-156)에 실렸던 칼럼으로 저자의 동의하에 기고되었음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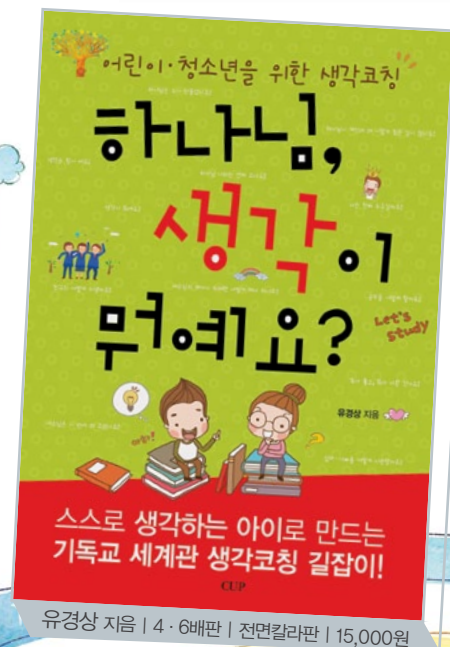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지난 2013년 12월 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창립 16주년 기념세미나 "베리칩(Verichip)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편집되었습니다. <월드뷰>는 사회적 이슈에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어린이 ·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재
드디어 출간!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만든 생각훈련 길라잡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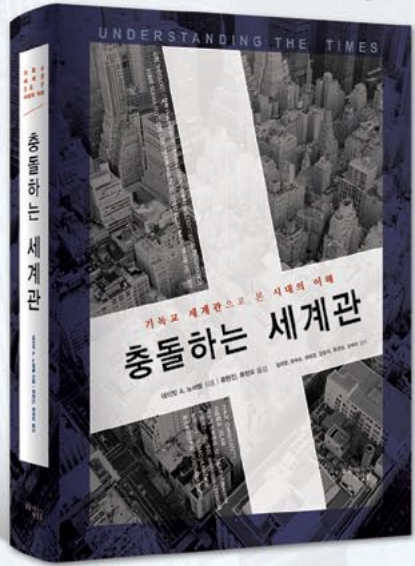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영·공!”(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요)을 외치면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 이 책이나 주말 세계관학교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자 직강 및 세미나도 가능합니다. 02)745-7231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cupbooks.com 02)745-7231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시대의 이해 충돌하는 세계관

데이빗 A. 노예벨 지음 | 류현진, 류현모 옮김 | 608면 | 양장 | 정가 35,000원

현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을 비교하며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배운다.

주제 신학 / 철학 / 윤리학 / 생물학 / 심리학 / 사회학 / 법학 / 정치학 / 경제학 / 역사학

대표적 세계관 기독교 / 이슬람교 / 세속적 인본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 / 뉴에이지 / 포스트모던주의

UNDERSTANDING THE TIMES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세계관 교과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김성수 박사**(고신대 총장), **김의원 박사**(백석대 부총장),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과), **성인경 목사**(라브리공동체 대표간사), **김승욱 교수**(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공동대표) 추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인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역사의 승리가 되기도 하고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시대의 낙오자나 패배자가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정독하여 학습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책을 통해 한국사회에 세계관 혁명이 일어나 건강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_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 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독교교육 전문서점 서울시 서초구 인재동 363 / Tel. 02-529-7722 / 홈페이지 www.dctybooks.co.kr(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세미나/컨퍼런스/다양한 교육정보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일상다반사
기독교세계관과 성경읽기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믿음과 창작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다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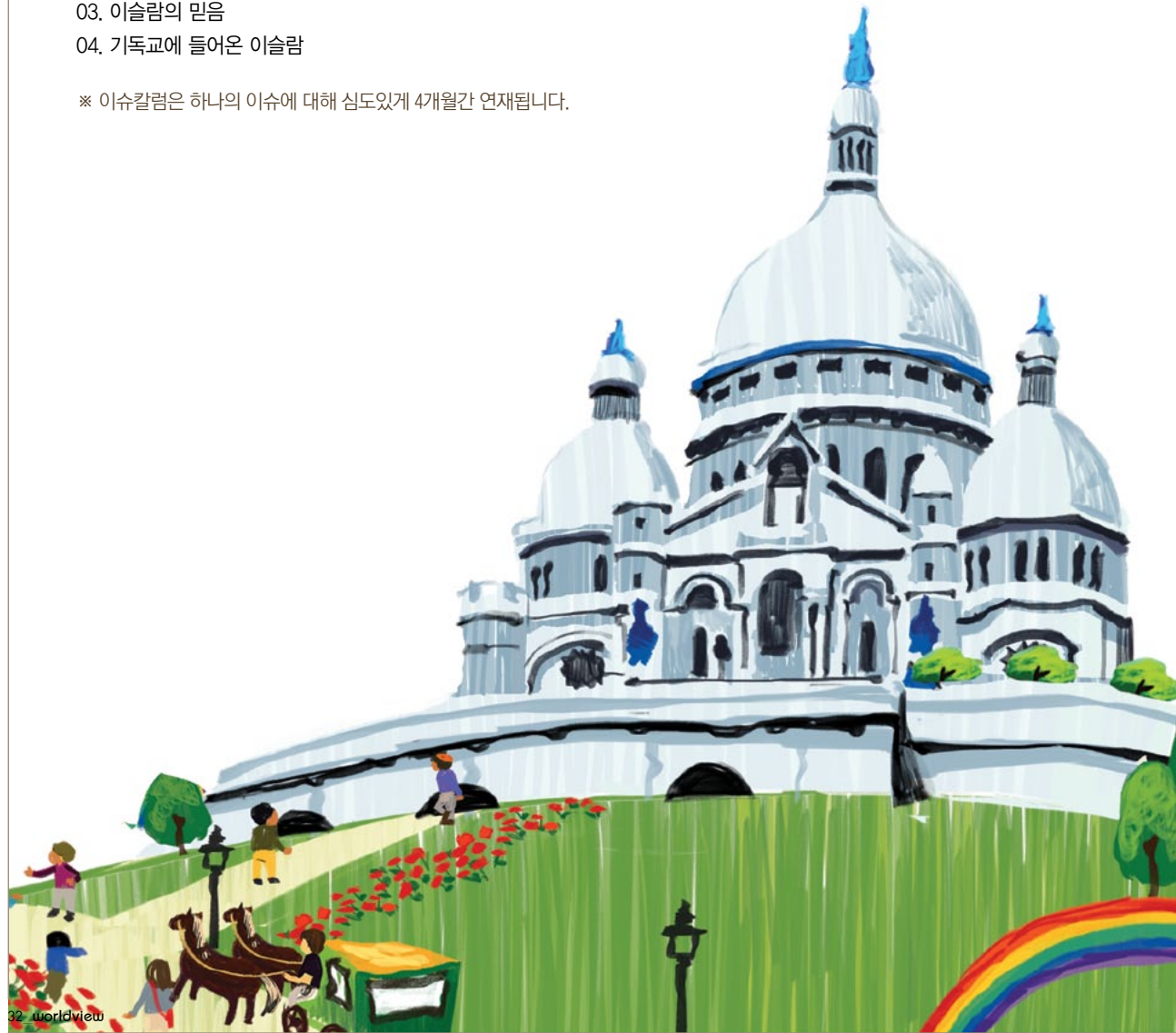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깊이 들여다 보는. 이슬람 읽기

- 01. 한국의 이슬람
-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 03. 이슬람의 믿음
- 04. 기독교에 들어온 이슬람

※ 이슈칼럼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4개월간 연재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의 신학적 체계는 기독교와 아주 유사하다. 꾸란(Quran)에 나오는 단어의 18%가 아랍어 성경의 어형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3/4은 신약성경에서 인용한 것이다. 또한 구약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약 60%, 신약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약 7-8% 나와 있다.

이처럼 꾸란은 성경과 비슷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슬람은 14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옆에서 성장하였다. 이슬람이 시작될 무렵 중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슬람이 성장하여 기독교제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은 모든 신학적 체계를 기독교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기독교인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었다.

꾸란은 이슬람의 근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래 아브라함은 무슬림이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는 이슬람이었다고 주장한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형이 변질되었기에 알라(Allah)가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서 그 원형을 복구하였는데 그것이 이슬람이라는 것이다. 이슬람의 가르침대로라면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원형인 이슬람의 알라로 돌아와야 한다.

정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신일까?

한국이슬람중앙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라는 글귀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이슬람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구별은 신관(神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랍어의 신(神) 개념인 “알라”는 이슬람에서 “유일한 진리의 신이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알라”로 표기한다. 그런 면에서 알라와 하나님은 동의어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알라의 초월성 - 신과 세상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면에서 꾸란의 알라는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은 일반적인 신, 즉 자연신앙적이다. 따라서 정통 이슬람에서는 알라와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굳이 표현한다면 알라에게 인간은 종이나 노예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

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슬람의 알라는 창조물에 속한 모든 속성과 상태를 초월하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특정기간 동안 자신을 제한했다고 믿는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에게 가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 속에 내주(the indwelling God)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부정 - 이슬람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하나님이 아닌 세 명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 이슬람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다신주의자인 셈이다. 또한 삼위일체를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오해한다. 따라서 삼위의 관계를 하나님과 마리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꾸란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연합체 내에 복수성이 있다고 믿는다.

성령과 가브리엘 -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한 믿음을 신성모독으로 본다. 꾸란에도 "영"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지만 모두 신비적인 육체를 가진 창조된 존재를 의미한다. 또 영감을 주는 개체로서의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꾸란16:102), 이 성령은 천사 가브리엘을 의미한다. 가브리엘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계시 경로로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 성령과 가브리엘 사이에 혼동이 빚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슬람의 구원관 - 이슬람에서는 알라 자신의 정의와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꾸란의 알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행한다. 알라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슬람 신자조차 자신이 구원받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물론 꾸란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속명론에 근거한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이다(꾸란 9:51).

이슬람에는 알라 자신의 정의와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꾸란의 알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행한다. 알라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둘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꾸란23:102-103). 셋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메카(Mecca)의 카바(Kaba)신전을 순례하는 경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꾸란 3:97). 넷째, 위에 언급한 세 가지와 다르게 유일하게 천국이 보장되는 경우가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이다. 꾸란의 많은 구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꾸란 3:169). 따라서 이슬람은 이슬람의 법인 샤리아(Sharia)를 실천하므로 구원을 받는 행위에 근거한 율법적인 종교이다.



PHOTO BY 유해석

하나님의 사랑 - 꾸란에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임무에 대한 강조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요한복음 4:7-21에 서만 사랑이란 단어가 27번 반복된다. 성경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알라의 사랑에 대한 구절은 거의 없다. 알라의 99개 이름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표현된 단어가 있기는 하다. 알와우드(Al-Wadud 꾸란 11:90)가 그것인데, 아랍어에서 알와우드(Al-Wadud)는 '친절'을 뜻하는 동사 와다(wadda)에서 발생한 것이다. 친절은 "사랑"의 부분적인 측면을 뜻하지만 사랑의 완전한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라의 사랑은 창조물에 대한 자비와 관심을 베푸는 점에서 기독교의 은혜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이거나 지속적인 사랑은 아니다. 기독교와 다르게 이슬람에서는 속죄하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꾸란의 알라는 기독교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아주 다르다.



PHOTO BY 유해석

이슬람에서 인간의 목적은 알라의 뜻에 삶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imam)이다. 인간의 본질은 연약하고 쉽게 타락하고 탐욕스럽다.

이슬람의 기본 원칙인 알라에 대한 복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운명론에 수동적이게 만든다.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더 다른가?

인간의 본질 - 이슬람에서 인간의 목적은 알라의 뜻에 삶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imam)이다. 인간의 본질은 연약하고 쉽게 타락하고 탐욕스럽다. 따라서 인간은 행위의 자유를 제한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율법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사람들이나 사회의 악이 우리의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연약함에서 발생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인간은 꾸란을 근거로 한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지킴으로써 알라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PHOTO BY 유해석

이슬람에서 인간은
하얀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며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대가로 천국에서 지구상으로
떨어졌다고 여긴다.

운명과 도덕의 책임 - 이슬람의 기본 원칙인 알라에 대한 복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운명론에 수동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면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한 아파트 발코니 난간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 우연히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은 알라의 뜻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알라의 과장된 천능과 복합된 이러한 운명적인 세계관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서 거의 완벽한 도덕적 책임감의 부재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알라는 선뿐만 아니라 악의 근원이기도 하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미 정해진 운명에 부합할 뿐이다.

원죄의 부정 - 이슬람에서 인간은 하얀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며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대가로 천국에서 지구상으로 떨어졌다고 여긴다.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타락의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더 이상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을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이 원죄는 여전히 전 인류를 지배하며 모든 인간의 죄 안에서 보여진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기독교적 교리는 이슬람과 다르다.

이단의 영향

이슬람이 기독교와 유사한 신학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슬람 종교가 당시 이슬람이 시작된 메카의 토속적인 신앙과 기독교 이단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속한 부족인 쿠라이쉬 부족은 “알라”라고 불리는 “달 신”을 최고의 신(神)으로 섬기고 있었다. 최고의 신이었던 알라의 속성에 기독교 이단들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이다. 기독교 비잔틴제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룹들이 비잔틴제국을 떠나 아라비아 반도로 피신하였고 아라비아 반도에

서 시작된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단들이 이슬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는 콜리리디아니즘(Collyridianism)이라는 종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 종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숭배와 경배를 마리아에게 드리는 등 마리아를 여신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또한 꾸란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 세력을 떨친 본질상 도세티움(Docetism)에 속한 영지주의적 기독교론의 영향을 받았다. 무함마드는 12살 때 네스토리안(Nestorian) 수도사 부하리를 만났다. 이 수도사



PHOTO BY 유해석

가 무함마드가 선지자임을 그의 삼촌에게 알렸다. 메카 주변의 왕국인 아비시니아(Abyssinia)에는 단성론자(예수 그리스도가 단성 즉 신성만을 갖는다고 믿음)들이 살고 있었다. 무함마드의 13명의 부인 가운데 마리아는 이 단성론을 믿는 이집트 콥트교 신자였다.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이단은 에비온(Ebionites)파였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에비온파의 특징이다. 에비온파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혼합종교로, 초기교회사에서 이단선교를 받았다. 당시 메카에는 약 200-300명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카디자(Khadija)가 이 에비온파 신자였으며 그녀의 외삼촌으로 무함마드에게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친 와라까 빈 나우팔(Waraqqa Bin Naufal)은 에비온파의 사제이자 메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다.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히라(Hira) 산 동굴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무함마드가 경험한 것이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라고 알려준 사람도 와라까 빈 나우팔이었다. 이러한 영향이 무함마드에게 확신을 주었고 새로운 종교를 세워가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이슬람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주해하면서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정의했으며,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또한 이슬람을 연구한 후 기독교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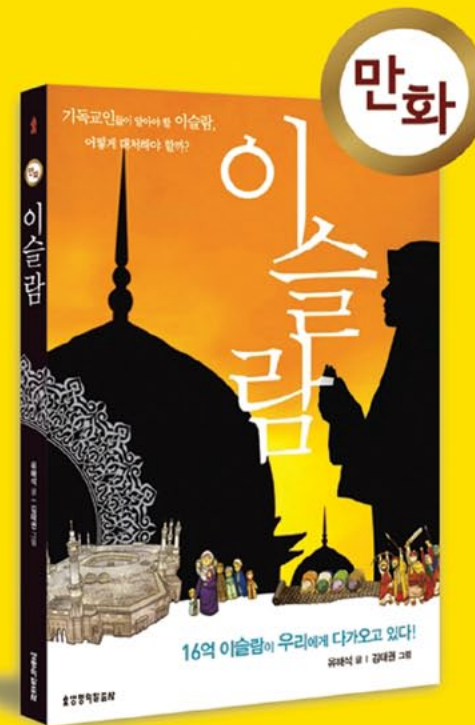
※ 다음 칼럼에서는 <이슬람의 믿음>을 다룹니다.



유해석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 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토마스 목사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16억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

21세기 기독교 선교 전선의 최대 과제는 이슬람과의 충돌이다. 대부분 이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다.



유해석 글 / 김태권 그림
값 13,000원

<만화 이슬람> 출간기념 이슬람 세미나

일시 : 2013. 10. 14(월) 15:00-21:30

내용 :

- 1강.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슬람
- 2강.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 3강. 이슬람에서 보는 여성
- 4강. 기독교와 너무 다른 이슬람



강사 : 유해석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장소 : 불광동 팀비전센터 (www.teamcamp.org)

(오시는 길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람.)

신청 및 문의 : FIM국제선교회 이메일 또는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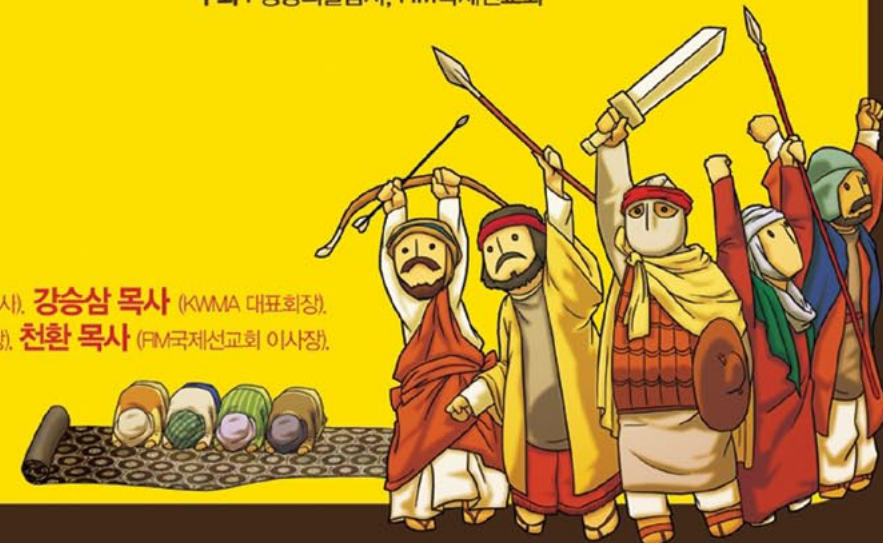
(fim@fim.or.kr / 1599-5591)

등록비 : 20,000원 (도서 <만화 이슬람>과 저녁식사 제공)

주최 : 생명명의말씀사, FIM국제선교회

•추천•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강승삼 목사 (KWMA 대표회장),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천환 목사 (FIM국제선교회 이사장), 조지 바위 (전 OM, 선교회 총재)



크리스천의 일상다반사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읽기

◎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 본 칼럼은 격월로 연재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읽기는 가장 익숙한 일
상이다. 또한 가장 경건해 보이는 일상이기
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에 성경책을 펴놓고 고요한 가운데 묵상한 말
씀이 분주한 일상으로 가득찬 하루를 지탱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
경 읽기라는 일상이 경건하기만한 그래서 성
찰이 필요 없는 일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독교 세계관적으
로 바라보자고 한다. 이 때 성경을 기준으로
성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성경 읽기는 성
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성경
을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을 읽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
는 일 또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성찰해볼 필
요가 있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과연 성경 읽
기라는 기독교인의 가장 익숙한 일상의 행위
를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
찰할 때, 우리는 어떤 통찰을 얻고 어떤 도전
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읽기
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타락은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오해하지 말것
은 성경 자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의 방법이나 목적도
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일 가운데 구속을 통해 회복될
영역은 어떤 것일까.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창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창조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
한다. 자연만물 뿐 아니라 사회의 제도와 기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
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성경의 진
리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것은 성경 읽기와 다른 일상의 일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에서 그것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빴던 마르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자신의 말을 듣는 것
에만 집중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 같은 이야기(눅 10:38-42)는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읽기가 밥상을 차리고 식사 후에 쌓인 그릇들을 설
거지하는 일보다 더 거룩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
무수리 같은 "마르다 신세"를 벗어나 핸드 드립한 커피향을 맡으며 성경책
을 펴놓고 우아하게 묵상하는 "마리아 품위"를 언제나 누릴 수 있을 지를 생
각하며 한숨 짓기도 한다. 그러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 방금 묘
사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마르다도 빨
리 이 가치 없어 보이는 부엌 일을 끝내고 마리아 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내 빨리 이 가지 없는 일을 끝내게 해달라고 불평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알려주신다 (개역개정 난외주 참고). 이 말씀은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엌 일 한 가지만 했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집안 일에 바빴던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지적하신 것이다. 물론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새번역)라는 말씀은 여전히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 - “말씀 듣기” - 가 마르다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 “준비하는 일” 또는 “봉사하는 일”(개역개정 난외주 참고) - 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든지 항상 적용되는 보편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순간에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그 상황에 대한 특수한 말씀으로 보인다. 특히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에 나오는 “자비를 베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더욱 그렇다. 누군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성

경을 따르고자 했던 종교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의 행동보다 더 “좋은 일”이 아니었다. 일상의 모든 일이 똑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해도, 각 행동들은 그 행동이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다.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 만큼이나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설교 시간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일인것 처럼 말이다.

요컨대, 한 가지만이라도, 즉,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적절한 상황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성경 읽기 만큼이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손님 접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 보다 더 성스럽고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라는 관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경험할 때, 본질적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를 설거지 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주는 첫 번째 통찰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 읽기에 주는 두 번째 통찰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성경 읽기와 다른 일상의 관계에 대

해서 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행위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통찰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덜 경건하고 심지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은연 중에 생각한다. 성경을 가장 경건하게 그리고 제대로 읽는 법은 기도하며 읽으며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것이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문학자들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들의 글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며 이성을 통해 말씀을 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 읽기에도 성숙 이원론이 영향을 준 결과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만일 성경의 학문적 연구가 잘못되는 것은 윌터스의 개념을 빌리면 학문적 성경 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 그것의 구조의 문제 - 는 아니다. 지성과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의 법에 따라 만드신 구조의 요소로, 성경을 지적으로 읽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감성과 감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탐구하는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난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지식을 사용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읽을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인정하는 성경 읽기일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 읽기에 주는 세 번째 통찰은 하나님이 성경을 자신이 창조하신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이신론적인 창조가 아니라, 실제 시공간에 계속 개입하시는 섭리적인 창조라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한다. 성경이 구체적인 시공간에 개입하신 신적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영원한 진리를 가장 적절히 깨닫기 위해 그 성경이 일차적으로 주어셨던 역사와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for)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to) 주신 말씀은 아니다.” 성경이 일차적으로 기원전 수천년 전부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to) 주신 것이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to) 주신 것은 아닌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여져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21세기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는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물론 인간으로서의 공통적인 문제들 - 예를 들어 죄의 문제 - 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를 위한(for)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적절히 읽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성경을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신론적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나가며

성경 읽기가 다른 일상보다 더 경건한 행위는 아니다. 모든 일상이 똑같이 경건한 주의 일이지만 각 일들은 그 고유한 위치가 있다. 이성과 지성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 성경을 그 원래 배경을 염두에 두며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경을 남시기며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에는 인간의 타락이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감성과 감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탐구하는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전성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B.Sc.), 캐나다 리젠틸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을 (M.C.S., Th.M.),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구약학을(D.Phil.)에서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가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곧 출판된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를 하고 있다.

믿음과 창작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다

● 홍순모 (조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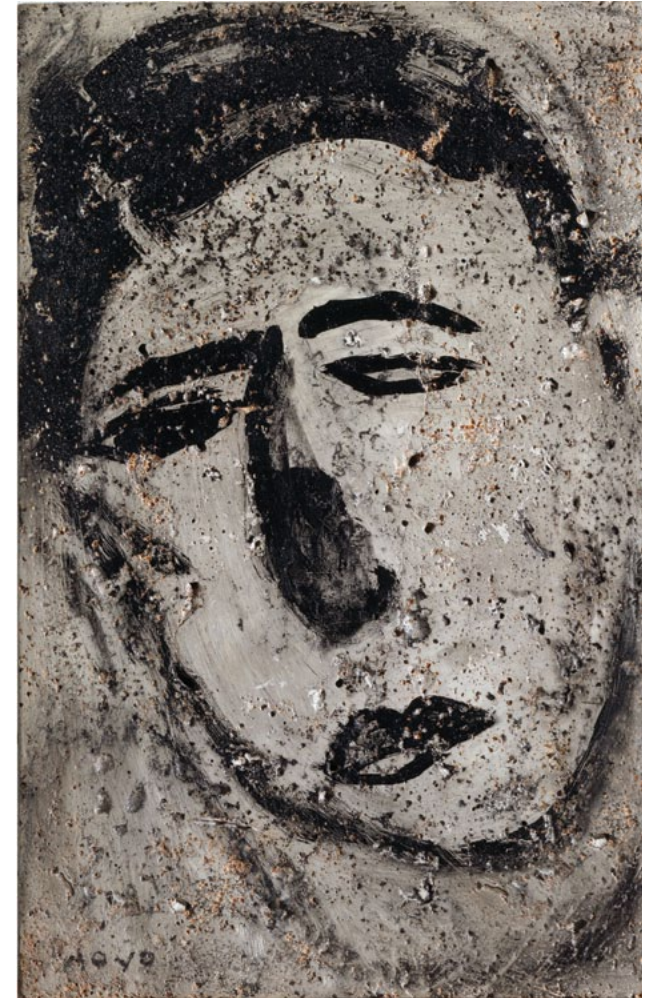


나의 작품 주제는 인간이고, 소재는 인체이다. 나는 길가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 때로는 공중목욕탕 안에서 벗겨 벗은 인체의 속살과 민낯까지도 끊임없이 관찰한다. 뿐만 아니라 앞 세대 선조들의 빛바랜 사진 속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과 주변 풍광에도 몰입한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용해된 시대의 체취를 찾아낸다.

인간을 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인체를 선택한다. 이때 인체는 무엇인가라고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체가 무엇이 될까 하고 조형적으로 생각한다. 인체를 조형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지를 사고하는 것이다. 재해석된 인체는 형태가 되고 형태는 다시 조형이 된다. 조형화된 인체 형태는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인체라는 물성을 떠난 형상화된 조형언어이다.

조형언어에 나는 아우라를 담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아우라는 예술 형식의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아우라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즉, 아우라는 해독(解讀)하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해득(解得)되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이다. 해득의 조형정신인 아우라는 예술의 정신세계에서 지속되어 온 시·공간을 뛰어넘는 예술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나의 창작 방향은 아우라를 통한 시대정신의 구현이다.

나는 창작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의 본질을 배웠고, 이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 만물의 질서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창조 질서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적 절대 가치이다. 예술의 중용은 내용적 형식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고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조형적 조화



와 질서에 있다. 그러기에 예술의 조형질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와 맞닿아 있다는 원리를 확인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인간의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그리고 영적세계라는 유기적 순환 고리가 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적·예술적 관점으로 대비시켜 묵상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창조적 개념과 의미, 이를 통한 작가인 크리스천의 믿음과 창작에 관한 평가와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찰한다. 창조질서라는 개념에서 볼 때 과학자들이 기존의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어 물질문명을 만들어내듯이 예술가들은 캔버스와 물감, 붓이라는 물질을 수단으로 정신문화인 예술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흙이라는 물질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영혼)을 만들었듯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과학자, 예술가에게 창조적 능력과 이를 구사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창조의 속성에는 과학자가 만든 물질세계의 유한성, 예술가가 구축한 정신세계의 무한성,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시공(時空)의 차이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작가인 크리스천은 믿음과 창작이라는 동반자적인 삶의 궤적에서 볼 때 평가의 대상이 된다. 크리스천으로는 믿음으로 평가받고 작가로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믿음과 창작의 평가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세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절대적 사랑의 주체로 삼는다. 미술에서도 원시 미술이나 아프리카 미술은 피카소와 같은 대가의 작품과 우열의 차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피카소가 그들의 작품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을 정도이다.

믿음과 창작은 양(量)이 아닌 질(質)로 평가를 받는다. 양이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믿음과 창작은 내용의 질로 평가를 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같은 헌금이나 백부장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도예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미련 없이 깨버리듯이 대부분의 예술가들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기대하며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 없이 다시 제작한다. 이 같은 제작으로 나온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피카소의 '게르니카' 등이다. 이러한 걸작들은 작가의 명예를 지킨다. 좋은 작품은 장점이 많은 작품이기에 앞서 역설적으로 단점이 없는 작품이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선행이 아닌 죄의 유무로 기준 삼듯이, 믿음과 창작의 평가는 결과보다 과정에 둔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목표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믿음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다. 목표는 방향이고, 방향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창작의 목표도 동일하다. '예술가는 평생 다듬는다.'라는 말이 있다. 예술가는 작품을 평생 다듬는다. 크리스천도 믿음을 평생 다듬는다. 이것이 작가인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이고 과정이다. 좋은 과정은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그것은 순수함과 가난한 마음과 열정이다. 그러므로 작가인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과 창작이 분리 될 수 없는 혼합일치의 융합적 관계이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인문학 교수인 헤럴드 블룸은 "문학 비평은 이론적이라기보다 경험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다. "믿음과 창작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실천이어야 하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어야 한다." 이것이 작가인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삶의 목표이며 자세이다.



홍순모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교환교수를 했으며 가나화랑 전속작가로 있다. 한국,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개인전과 비엔날레(biennale)등 국제전에 참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월간 미술, 공간 등의 미술전문 잡지 등에서 미술대학교수, 미술비평가, 작가 등이 뽑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여러 번 추천되었고, 시공사에서 홍순모 개인화집이 출간되었다. KBS TV에서 "스승과 제자" 라는 프로에 60분간 특집으로 스승인 최중태(예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홍순모의 작품세계가 소개되었다. 또한 중국정부에서 격월간으로 출판되는 "조소" 미술전문 잡지에 특집으로 홍순모의 작품세계가 실렸다.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

9 책의 양면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한국 교회가 처한 난맥상을 진단·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필자는 본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 핵심을 분석하고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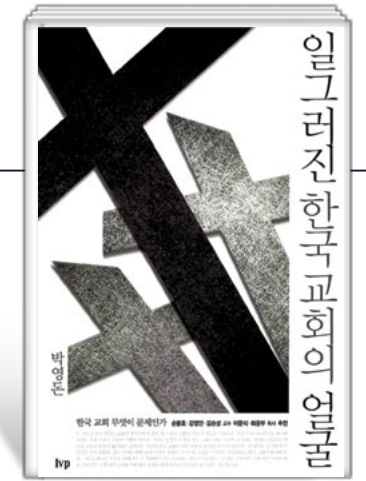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일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런 두려움을 잘 아는 저자는 경건한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섰다.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일종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 지상에 교회가 서고 전진해나가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성원으로는 우선 신학교가 있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신학교수에게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있고,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의 전진에 가담하는 회중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연쇄고리를 형성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진단이다.

신학교는 진실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신학교의 난립, 목사 후보생의 초과 배출, 목사직의 남발이 한국 교회 타락의 핵심에 놓여 있는 문제다.”(123면) 하지만 신학교의 문제는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수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교회의 기득권자들과 기존 체제에 너무 잘 순응하고 보신주의 벽 안에 숨어 자신을 지키는 데 약삭빠르게 처신하기만 하고... 학자라는 자들은 세련된 말과 이론으로 의식 있고 개혁적인 것처럼... 예언자 흉내는 멋들어지게 내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부조리에는 잘 길들여진 양처럼 순응해 버리고...”(123면) 신학교는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교수들은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목회자들을 양성한다. 월터스토프의 말을 빌면, “외식의 영속화”에 기여하는 셈이다. 이런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는 기독교란 ‘외식하는 종교’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 문을 나설 것이다.

모순된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에 서는 목사들은 대형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저자는 대형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음주의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몇몇 목회자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한다. 저자는 대형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론이라고 본다. 대형 교회는 이미 내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서 교회의 바람직한 본질을 형성하고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규모가 적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성경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본질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결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18면) 결국 대형 교회에서 파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교회의 크기에 따른 내적 결함 때문인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교회를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야 한다. 저자는 교회의 적절한 인원을 최대 300명으로 본다. 둘째, 대형 교회에서 잘 훈련된 신자들이 소형 교회로 가서 봉사하여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서평자의 입장에서 둘째 대안은 다소 당황스럽다. 대형 교회가 선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저자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훌륭한 신자를 양성해서 소형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형 교회는 나은가? 그렇지도 않다. 소형 교회의 목회자도 결국 동일하게 세속적인 신학교와 교단을 통해 목사가 되었을 뿐이다. 힘이 없어서 소형 교회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마음 속으로는 대형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규모만 작다 뿐이지 그 정신은 대형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34면).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방법론을



박영돈 저 | IVP

저자: 박영돈 연세대학교, 미국 풀러신학교, 칼빈신학대학원, 예일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수학. 현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

추천자: 손봉호, 강영안, 김순성, 이문식, 최종부

다루는 세미나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소형 교회의 목회자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 대형 교회는 소소한 개인의 사정을 다 같이 공유하기 어려우므로 서로간에 과도한 긴장을 피할 수 있고, 대형화가 가지는 비인격적인 특성 때문에 목사의 인격적 흠도 감춰질 수 있다. 반면 소형 교회는 모든 것이 노출되므로 작은 공동체의 이점이 되어야 할 인격적 친밀감이 도리어 약점으로 작용한다(34-35면). 교회와 관련하여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환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기저기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의 능력과 인격을 견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형 교회는 목사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도 없이 겸손하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교회 문제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다. 또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이 있다. 그러면 평신도인 회중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들지 않았다면 어찌 대형화가 이루어졌겠는가. 사실 대형화의 주역들 중 하나가 교인들이다.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질, 정신적 자원뿐 아니라 그 명분과 의의까지 제공한 이들이 바로 교인들이다.”(153면) 결국 세속적인 성공을 간절히 꿈꾸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마음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 대형 교회라는 것이다.

신학교, 목사, 회중의 삼박자가 타락함으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저자의 해법은 원론적이지만 사실 그 외에는 별로 뾰족한 해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예배와 바른 설교의 회복이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목회의 성공이나 교회의 대형화와 같은 속된 욕망이 다 없어져야 한다. 신학교 교수의 문제이든, 목사의 문제이든, 교인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 특별히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대한 무지가 있는데, 이론적인 무지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무지이기도 하다. 경험적인 무지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을 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경건한 말로 거룩한 외형을 아무리 꾸며도 마음속에 숨은 세속적 욕망이 그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저자는 말씀과 성령이 해법이라고 설파한다. 영광의 경험은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영광의 경험을 위해서는 그 경험을 언어로 전달해 주는 성경 교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말씀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인 경험이 된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된 후에는 신학교, 목사, 회중이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한국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첫째로, 교회와 신학교는 목회자 선발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 후보생을 뽑아서 신학교로 보낼 때에 소명의 문제를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 받은 목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 소명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 모든 주관적인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자기소명에 대해 주관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도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그 성도에게 냉철하게 조언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부르심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을 뽑아서 신학교로 보내야 한다. 신학교는 그를 위탁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에 필요한 지적 내용을 채워주고 소양을 키워주어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목사에게 영광의 체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목사는 실제로 이 경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간구하여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참된 목회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가장 먼저 그의 설교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 변화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이 설교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므로 저자가 한국 교회의 설교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을 비판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던 정용섭 목사의 책들을 분석한다. 그의 책은 성공한 한국의 목사들, 설교를 잘 한다고 알려진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들을 조명하고 약점들을 여지없이 비판했다. 저자는 그의 비판에 상당부분을 공감하면서 설교의 난맥상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용섭 목사 또한 신학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설교에 대한 지적들 가운데 바른 측면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잘못된 신학적 전제들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 작업을 저자는 심혈을 기울여 수행했다.

“
신학교, 목사, 회중의 삼박자가 타락함으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신자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히 성도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명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일과 평일에 사는 모습이 판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일예배 시간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주일과 평일의 생활이 다를 수 없다. 물론 주일과 평일에 하는 일과 접촉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므로,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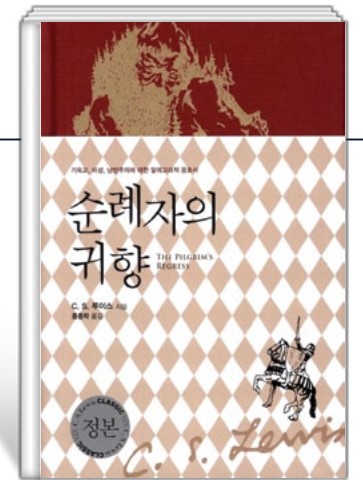
이렇게 신학교와 목사와 회중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까지 제시하는 책이 여기 있다.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명철 총신대에서 신약학(Ph.D.)을 수학과 현재 성의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중생과 윤리>, <다시 겸손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다수가 있다.

순례자의 귀향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C. S. 루이스 저/홍종락 역 | 홍성사 | 2013년 11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 그는 독특한 지적 편력을 지닌 저술가였다. 성공회 가정에서 자란 루이스는 아홉 살 때 압으로 어머니를 잃으면서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게 된다.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간절한 기도에도 왜 어머니가 고통 중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루이스는 학창 시절 내내 혼돈의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지적으로 정직한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929년 그는 유신론으로 돌아섰고, 1931년에는 기독교로 회심하였다.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향』 제3판 후기(後記)에서 자신의 지적 여정이 “대중적인 실재론(popular realism)에서 철학적인 관념론(philosophical idealism)으로, 관념론에서 범신론(pantheism)으로, 범신론에서 유신론(theism)으로, 유신론에서 기독교(christianity)로” 변화해 왔다고 요약한다.

10대에 예이츠와 메틸링크의 신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심령 현상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의 주된 지적 입장은 유물론이었다.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버클리, 유신론적 관념론, 베르그손의 진화론적 관념론, ‘영국 헤겔학파’의 관념론 등에

경도되었다. 루이스는 다양한 관념론을 공부하던 중 브래들리의 사상을 접하게 되는데, 이 영국 학자는 힌두교의 브라흐만-아트만 사상과 유사한 범신론—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자는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자연에 내재된 존재라고 봄—을 주장했다. 다양한 지적 여정을 거쳐 온 루이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작가는 조지 맥도널드이다. 열여섯의 루이스는 조지 맥도널드의 『팬타스티스 Phantastes』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맥도널드의 작품을 읽고 즉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시작으로 에드먼드 스펜서, 존 번연, 조지 허버트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글을 꾸준히 읽게 되면서 그의 옛 신념과 철학은 조금씩 무너져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유신론을 향해, 그리고 중국에는 기독교를 향해 나아갔다.

『순례자의 귀향 The Pilgrim's Regress』(1933년)은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가 최초로 저술한 작품으로, 존 번연의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을 원형으로 창작한 알레고리 작품이다. 『천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등을 지나 결국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순례자의 귀향』은 화자(話

者)가 꿈 내용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이다. 주인공 존은 고향인 퓨리타니아(Puritania)의 숲에서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한 섬을 안개 사이로 어렵게 본 후 갈망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섬을 찾아나서게 된다. 『천로역정』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의 도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여정(progress)을 담고 있다면, 『순례자의 귀향』은 퓨리타니아에서 신비한 섬을 찾아 서쪽으로 나아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여정(regress)을 담고 있다.

신비한 섬의 모습과 바다 건너서 들려오던 감미로운 음악을 갈망하던 존은 숲에서 알몸의 갈색 여자를 만난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존이 원하던 존재라고 말한다. 숲에서 종종 그녀와 육체관계를 가졌던 존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녀가 아님을 깨닫고 그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다. 섬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힌 존은 결국 깊은 밤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서쪽으로 향한다.

추위에 떨며 칠혹같이 어두운 밤길을 재촉하여 아침에 주막에 도착한 존은 거기서 계몽(Enlightenment) 선생을 만난다. 계몽 선생은 존이 퓨리타니아에서 왔다고 하

자 지주(Landlord)를 두려워하며 자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존은 어려서부터 온 땅의 주인인 지주님에 대해 들었고 지주님이 금지하신 목록을 어기면 “큰 전갈들과 뱀들이 우글대는 검은 구덩이”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런데 계몽 선생은 지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집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끄짖 못하도록 만들어낸 발명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주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대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장담”하는 계몽 선생과 헤어진 후 존은 미덕(Virtue) 씨를 만난다. 그는 스스로를 지주의 굴레를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지가 불분명하지만 자신도 순례 중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한 규칙인 하루에 50km씩 걷는 일이라고 말한다.

미덕 씨와 동행하던 존은 미디어(Media)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존은 한때 사랑했던 갈색 여자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여성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온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녀도 자신과의 사랑이 바로 섬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

너는 존에게 아버지인 하프웨이스(Halfways) 씨를 소개한다. 이 노신사는 “섬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쓰는 지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딸과 존이 서로를 품에 안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에서 섬을 발견했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미디어의 오빠가 등장하면서 이들 부녀의 정체가 밝혀진다. 그에 의하면 여동생은 그냥 갈색 여자이며, 아버지는 사실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후 계속되는 여정에서 존은 양식(Sensible), 관대(Broad), 지혜(Wisdom), 그리고 은둔자인 역사(History)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의 여정은 신비한 섬으로 향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는데, 북쪽은 이성과 객관적 사고방식을, 남쪽은 상상력과 주관적 사고방식을 대변한다. 그리고 가운데 도로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더 멀리 갈수록 두 관점은 점점 더 극단화된다.

거대한 협곡(Grand Canyon)에 도달한 존과 미덕은 협곡을 건너기 위해 마더 키크(Mother Kirk: 어머니 교회)라는 노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마더 키크는 자신을 지주님의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그 나라의 초창기 역사를 말해준다. 본래는 지주님과 그 자녀들이 직접 땅을 경작하고 목축을 했으나, 이들만 누리기 가까워서 젊은 부부에게 소작을 맡겼다. 그런데 그 땅에는 지주님이 자녀들과 내려와 일하다 목이 마르면 먹으려고 심어놓은 산사과 나무가 있었다. 그 과일은 인간이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이었다. 지주님은 젊은 부부에게 농장 한복판에서 자라는 산사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농부의 아내가 원수의 핏에 넘어가 하나를 따서 먹었고, 아내의 말을 듣고 농부도 하나를 따서 먹으려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 북쪽에서 남쪽까지 땅이 죽 갈라지며 거대한 협곡이 생겼다는 것이다.

“『순례자의 귀향』을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프는 ‘갈망’이다. 존은 어렵פות이 드러난 갈망의 원천을 찾아 모험을 떠났고, 마침내 그 갈망의 원천이 ‘지주님’인 것을 발견한다.”

협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마더 키크가 이들을 아래로 업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미덕은 스스로가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노파의 도움을 거절했다. 존도 노파의 제안을 거절하고 미덕을 따라 길을 찾아 나선다. 존은 북쪽과 남쪽을 각각 여행한 후 협곡 아래로 내려왔다. 그가 내려오는 모습을 왕관을 쓰고 홀(笏)을 잡은 마더 키크가 바라보고 있다. 협곡을 건너는 길을 찾지 못한 존은 그녀의 충고에 따르기로 한다. 그녀는 걸치고 있는 누더기를 벗고 머리부터 다이빙하여 물속 깊은 곳, 절벽 아래 있는 티널을 통과하여 건너편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계몽과 미디어를 비롯한 유령들이 나타나 노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혹하지만, 먼저 협곡 아래에 도착하여 뛰어든 준비를 하고 있던 미덕의 권유를 듣고 그를 따라 물속에 뛰어든다.

미덕과 함께 협곡을 건넌 존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섬을 보게 된다. 그들 앞에 한 안내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사실 그 섬은 퓨리타니아에서 지주님의 성이라 불리던 동쪽 산의 반대쪽 면이라고 말해준다. 그 산은 퓨리타니아의 동쪽에 있었으나 존은 집을 떠나 줄곧 서쪽으로 여행해 왔기에 다시 동쪽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안내자는 돌아가는 길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안내자가 말한 대로 존과 미덕은 땅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귀로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차가운 용과 뜨거운 용을 만나 싸워야 했으며, 예상과 달리 좁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안내자는 그들에게 “인간에게 최악의 적은 안전”이라고 말해준다.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퓨리타니아로 돌아온 존은 부모님이 이미 개울을 건너 동쪽 산으로 건너갔음을 알게 된다. 안내자는 존에게 해지기 전에 그 역시 개울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순례자의 귀향』을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프는 ‘갈망’이다. 존은 어렵פות이 드러난 갈망의 원천을 찾아 모험을 떠났고, 마침내 그 갈망의 원천이 ‘지주님’인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루이스의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나 파스칼의 전통과 연결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

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파스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허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신을 떠난 현대인에게도 C. S. 루이스적인 의미의 ‘갈망’은 존재한다. 현대인은 재물, 성, 명예와 권력 또는 안정된 직장을 갈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갈망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갈망의 원천은 하나님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전하러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그 갈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발견한데 대한 감격을 망각할 때가 많다. 또 갈망의 원천보다 모조품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갈망의 원천을 향해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갈망의 원천보다 갈망의 모조품을 더 추구하는 현실이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고 나 자신의 비극이다.



송대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에서 문예비평이론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기들』, 『이미지와 상징』, 『판타지』가 있다.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혁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독교세계관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인간, 자연, 역사를 보고 그것에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이 하나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 사 장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 사 : 박상은(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합신대 교수), 이강인(엘비전 대표), 전광식(고신대 총장), 정희영(총신대 교수)
 공동회장 :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감 사 :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실행위원회

위 원 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위 원 :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김해정(CUP 대표), 신국원(총신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장수영(포스텍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추태환(안양대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최현일(생병원 연구원장)

*가나다 순

연구본부 연구본부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부회회장 : 국제협력_손병덕(총신대 교수), 대외협력_박문식(한남대 교수), 학술_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_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총 무 : 문준호(ACSI Korea) 감 사 : 김홍섭(인천대 교수)
 학회이사 : 강영안(서강대 교수), 김홍섭(인천대 교수), 윤완철(카이스트 교수), 조무성(고려대 교수), 황호천(세종대 교수)
 학회이사 및 : 경제/경영(한국기독교경제학회), 이홍구(건국대 교수), 교육_박영주(아신대 교수), 문화/예술_서성록(안동대 교수), 분과회회장 : 법학_조영길(I&S법무법인 대표), 사회복지_이상무(평택대 교수), 상담/심리_전요섭(성결대 교수), 역사_권태경(총신대 교수), 융합_이우성(STEPI 박사), 의학_김지원(백석대 교수), 철학_양성만(우석대 교수)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최용준(한동대 교수)

편집위원 : 계영희(고신대 교수), 권정태(호서대 교수), 김경민(전남대 교수), 김동원(전북대 교수), 김정호(국립한밭대 교수), 배용수(성균관대 교수), 박신현(고신대 교수), 신현호(백석대 교수), 유지황(관동대 교수), 이의영(군산대 교수), 조창근(조선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세계관연구소 소 장 : 김종락(경북대 교수)

운동본부 운동본부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세계관운동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대외협력위원회_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국제협력위원회_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중국사역위원회_정수균(선교사), 지역관리위원회_박신현(고신대 교수), 대학청년위원회_최용준(한동대 교수), 언론위원회_강진구(고신대 교수)

교육본부 교육본부장 : 추태환(안양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 신국원(총신대 교수), 부소장: 이승구(합신대 교수)
 미디어아카데미 원장 : 조정민(BASIC Community Church 목사) 운영위원 : 강진구(고신대 교수), 장유진(미코필름 PD), 유지은(PD)

교재개발위원회 위 원 장 : 최태연(백석대 교수)

월간 월드뷰 대표주간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발행인 : 김승욱(중앙대 교수) 편집인 : 신효영

도서출판 CUP 대 표 : 김해정 마케팅 실장 : 윤여근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 장 : 양승훈 전임교수 : 전성민 간 사 : 이계현
 이 사 : 조영택(밴쿠버 코스타 이사장), 박신일(그레이스 한인교회 목사), 김명준(밴쿠버 지구총교회 목사), 김주영(신세계보험)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CTC 대 표 : 유경상, 팀장: 한부익, 안성희

CMCA 프로덕션 PD : 장유진

사무국 사무국본부장 : 최현일(생병원 연구원장) 대표간사 : 신효영, 간사 : 김고운, 홍정석, 파트간사 : 김소라

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출범하였습니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홈페이지 가입 시 자동으로 온라인 회원이 되시며, 일정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은 회비에 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종류	월 회비	E 매거진	월드뷰 (잡지)	신앙과학문 (동재학술지)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논문 투고자격	동영상 강좌	기부금 영수증
정회원	10,000원 이상	●	●	●	●	●	●	●
저널A	3,500원	●	●					●
저널B	5,000원	●		●				●
저널C	7,500원	●	●	●				●
온라인회원	-	●						

[납부방법]

- CMS신청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회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자동이체 : 후원자님께서 직접 거래 은행에 가셔서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좌입금 :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연간회비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무국으로 문의 주십시오.

*문의 02) 754-800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3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2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1,240,000		기타급여	1,538,750
	일반회비	4,091,000		소계	4,938,750
	기관후원금	5,210,000	경상비	사무실관리비	483,060
	기타후원금	292,000		통신비	283,510
	월보구독료	705,500		우편료	63,750
				소모품비	226,400
				비품	92,000
				식비	358,120
				복리후생비	850,980
		교육비		94,500	
		회의비		177,45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	188,557		
소계	12,738,500	소계	3,038,327		
기타수입	기타수입	390,107	기타지출	세금 및 기타	49,840
	소계	12,738,500		소계	49,84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강사로	1,600,000
				미디어비품구입비	19,000
				미디어식비	89,300
				미디어행사준비	300,000
				미디어기타	132,000
	소계	0		소계	2,140,3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0
	소계	0		소계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학술지심사비	70,000		학회자료제작비	0
	학술지게재료	1,822,500		학회홍보및기타	0
	저작권료	812,370		학술지인쇄비	3,050,000
	학회기타수입	4,600,000		학회기타	169,000
	소계	7,404,870		소계	3,219,000
당월 수입액		20,533,477	당월 지출액		13,386,217
전월 이월액		44,373,560	차월 이월액		51,520,820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3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광고수입(월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500,000	
				기타급여	0	
				소계	1,500,000	
			제작비	교정 및 디자인비	1,050,000	
				인쇄비	2,260,720	
				기타제작비	30,000	
			소계	3,340,720		
			발송비	DM발송비	659,810	
	소계	2,100,000		소계	659,810	
	기타수입	예수금	142,625	경상비	복리후생비	592,900
			식비		42,500	
			회의비		30,700	
			소계		666,100	
			세금		8,560	
			기타	기타	15,750	
				소계	24,310	
소계		142,625				
당월 수입액		2,242,625	당월 지출액		6,190,940	
전월 이월액		9,922,325	차월 이월액		5,974,010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경휘, 김민지, 김병재, 김영주, 김은호, 김태우, 김희원, 노주하, 박상희, 생명의강, 영음사,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귀희, 황보난이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성범,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재우, 김준,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장, 노승욱, 박광제, 박상균, 박승룡,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양해영,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윤희, 이인수, 이향숙, 임선제, 임형준, 장현일, 전충국, 정범채,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 지경순 7천5백 고상섭, 김영숙, 김은미, 김효태, 민수진,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승훈,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재호,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갈원평, 김경숙,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범식, 김보경, 김상욱, 김성경, 김성기,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영남, 김영환, 김용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재엽,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호, 김중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아, 김민익, 김혁, 김현경, 김현정,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류현모, 마민호,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두한, 박성인, 박세아,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진희,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소중화, 손현탁, 송미정,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자, 신진선,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호영,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행모, 오성호, 오지순, 원선희,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윤상현,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계심, 이관철, 이규현,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무, 이상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원배, 이윤재, 이은미, 이은자,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욱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장원, 전중화,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상록,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주,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향, 조재천, 조현용,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상열, 최성두, 최세진, 최은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현식,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정호, 한진영, 한해실, 한화진, 허찬영, 허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호, 홍성희, 홍준호, 홍철의, 황규영, 황도용, 황세환,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4천 김진호 1만5천 김선화, 김승택, 김효순, 신선영, 정상선,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동우, 김세광, 김요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김창현, 노용환, 문석윤, 박영혜, 배성민, 배은경, 배인교, 변우진, 양해원, 오한나, 우시정, 유경숙, 이 건, 이명희, 이윤규, 전광학, 조창근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문준호, 박상진, 박시운,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양성만, 오익서, 우병훈, 이대희, 이은실, 임지연,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8천5백 이상환 5만 김만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태,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황영철 6만 이근호, 조무성, 호남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김미영, 김승태, 김익희, 박상은, 송인규, 이상실, 전광식, 최태연 12만 심정섭 14만 차정호 15만 손봉호 20만 김원수, 김태환 30만 김경민, 김승욱

계 7,528,5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연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유교회, 주님의은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백석정신아카데미, 새로운교회

계 5,210,000원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모집] 대학로에 선 기독 대학원생

기독대학원생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변경가능) 금요일 오후 3시 대학로에서 가까운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있습니다. 동역회 의 교수님들을 멘토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하는 모 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일시** 2014.2.28(금) 오후 3시 (저녁식사 제공)
-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캠퍼스) 호암관 318호
- **문의** gihakyun@daum.net / 02-754-8004

<신앙과 학문> 2014년 1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2014년 1호의 투고접수를 받 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 세한 문의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과 학문> 을 세트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기관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 기 바랍니다.

- 19권 1호 발행일 3월 31일
- 19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 19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학회)

사무국 보고

[총회보고]

2013년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2013년도 총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 사의 인사 드립니다. 전년도 재정보고 및 사업보고는 홈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임원임명] 2014년도 임원 임명

신규 임명된 임원 명단입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감 사의 인사 올립니다.

- [교육] 세계관 교육본부장 : 추태화(안양대 교수)
- [학회]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 최용준(한동대 교수)
(편집위원은 추후 재공지합니다.)
- [학회] 경제분과장 : 이홍규(건국대 교수)

[기독미디어아카데미]

10기 종강 상영회 및 졸업예배

기독미디어아카데미 10기가 2월 7일(금) 종강합니다. 이에 졸업 예배 및 졸업영상을 상영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임원 분 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일시** 2014.2.7(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필름포럼(서대문구 대신동)
- **문의**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VIEW] VIEW 입학설명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의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4.2.13.(목) 저녁 7시
- **장소** 사무국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 **문의**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사무국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

혹 때려대나...

상담 전문가 학회의 휴식시간에 세 사람이 같이 산보를 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좋은 제안을 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만 골몰할 뿐 우리 자신들의 문제는 방치하고 있어. 오늘 우리끼리 만났으니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상담을 받는게 어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여성 상담사 김 씨가 먼저 시작했다. “나는 쇼핑광이야. 좋은 물건을 보면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돈이 궁하게 돼. 하는 수 없이 내담자의 병세를 과장해서 상담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야?” 모두가 그건 문제란 것에 동의했다.

상담사 이 씨가 고민을 털어 놓았다. “사실 나는 마약을 좀 해. 그런데 마약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돈도 모자랄 때가 많아. 하는 수 없이 마약 문제로 상담하러 온 내담자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가끔 그들에게 마약을 팔기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도 말야!” 그건 역시 심각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 박 씨가 입을 열었다. “다 들어보니 내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 같네. 나의 문제는 내담자들의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야. 내담자들이 실토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고는 못 배긴 단 말이야!”

김 씨와 이 씨
“이건 정말 날벼락이야. 어떡하지?”



믿음으로 가꾼 40년, 책을 넘어 감동으로

홍성사 창립
40주년 기념
이재철 목사
특별판



홍성사는 2014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자 이재철 목사 저서 특별판을 출간합니다.
특별판은 설교집 <요한과 더불어>, <사도행전 속으로>와
대담집 <지성과 영성의 만남>을 제외한
이재철 목사의 저서 전종(14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내가 있는 것>,
<인간의 일생>, <매듭짓기>, <비전의 사람>, <회복의 목회>,
<회복의 신앙>,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사랑의 초대>,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매월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 348면 | 양장 | 11,000원
참으로 신실하게 | 408면 | 양장 | 12,000원

사명자 반

이재철 목사의 신앙 훈련 시리즈
완결편



오디오 사명자반 CD, 오디오 사명자반 강의안 동시 출간!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이재철 저음 364면 | 14,000원

T. 333-5161 <http://www.jsbooks.com>

홍성사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질병부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 질병률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에 이어 3위로 공기오염이 꼽혔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제 기호제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항균성 천연물, 고삼을 이용한
나노 특허필터 개발



이리오스 힐링목재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를 위협하는 5종 악을 제거합니다.

- 냄새** 담배연기냄새를 비롯한 각종냄새
- 먼지** 50~70 μ m 머리카락, 10 μ m 황사, 2.5 μ m초미세먼지
- 세균** 폼알데하이드(CH₂O),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악성세균MRSA, 녹농균, 암모니아, 톨루엔
- 곰팡이** 집안을 부식시키고 음식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
- 진드기** 아토피 및 알레르기성 질환의 주요 원인



Object type Airpurifier
500*395*518(mm)
30평형



NC Pattern Airpurifier
450*450*630(mm)
30평형



Furniture type Airpurifier
510*510*682(mm)
30평형

ILIOCE
FURNITURE AIR PURIFIER

제품문의 1544-0834 대표자 김원수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2가 동국대 충무로관 신관 320호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플터치 패드 방식
- 적외선 감지센서 가능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www.facebook.com/ohauscorp

"생생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주세요"

